



年1000건 갑상샘 내시경 수술... 신경 손상 '제로'

갑상샘부문 대상 민병원

민병원은 매년 3000건 이상 외과수술을 하는 외과 전문병원이다. 김종민 민병원 대표원장은 2008년 4월 서울 강북구에 병원을 설립했다. 2012년에는 서울-경기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외과전문 병원으로 지정받았다.

민병원은 갑상샘 및 유방, 정맥류, 치료 내시경, 복강경 비만 수술 등을 전문으로 한다. 갑상선센터, 유방센터, 정맥류센터, 치료내시경센터, 복강경대사비만수술센터 등 총 5개의 특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갑상선센터는 개원 2년 만인 2010년 4월 갑상샘 내시경 수술(BABA) 1000건을 돌파했다. 연간 700~1000건의 갑상샘 내시경 수술을 한다. 갑상샘 내시경 수술은 기존 절개법에 비해 흉터가 남지 않고 신경 자극이 덜한 수술법이다. 갑상선센터에서는 내원 당일 초음파 검사와 작은 주사기로 갑상샘 결절 세포를 꺼내 악성인지 확인하는 세침 검사를 한다. 조직 검사도 검사 후 2~5일 만에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빠른 편



“정심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매일 외과 원장이 한 명씩 병원에서 숙직하는 등 환자 중심의 수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단일 의료진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대 갑상샘 내시경 수술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술 시작부터 마지막 피부 봉합까지 30~45분이 걸릴 정도로 수술 시간이 짧다. 김 원장은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환자 부담이 덜하다”며 “갑상샘 수술의 3대 합병증인 음성신경손상, 출혈, 부갑상선손상 등이 개원 이후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민병원에는 대학병원에서도 드문 복강경 전용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원내 수술실 세 곳에는 공기 중 박테리아를 걸러주는 항원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 수술실 타일 틈새에 균이 남는 걸 예방하기 위해 타일 대신 우레탄 절연체로

바닥을 작업했다. 3차원(3D) 입체 내시경 장비도 갖췄다. 대학병원 전임이나 전공의가 교육받기 위해 파견되기도 한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민병원은 유방 재건수술과 탈장 수술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병원엔 전문 의료진만 14명이다. 세계갑상샘내시경 BABA 심포지엄 등에 매년 참석해 발표하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내시경BABA 수술 관련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원장은 “의료진이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력으로 무장한 외과전문 병원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과 ‘경영혁신담’을 도입하는 등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인 의료기관 최초로 전문 간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수술 전후 관리, 항암치료 등을 1대 1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병원의 자랑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를 섬긴다는 병원 설립 초기 신념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기자 mwis@hankyung.com



인공 관절수술·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명성’

관절척추부문 대상 부천 연세사랑병원

부천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권세광·사진 왼쪽, 최철준·오른쪽)은 2003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출신 관절 척추 전문의들이 설립한 관절·척추 우수 병원이다. 부천 역곡동에 있는 이 병원은 관절 중심 정형외과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관절·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쾌유와 건강하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부천 연세사랑병원은 무릎·고관절 센터, 어깨·상지 센터, 족부 센터, 척추 센터 등 부위별로 세분화된 센터를 운영한다. 인공 관절수술과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재생술로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권세광 원장은 인공관절수술 전문가다. 최철준 원장은 고관절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 손상 전문인 이준상 원장 등이 병원 전문의들은 약 1만건 이상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제정 어깨센터 원장은 회전근개파열 등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수술 어깨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유종민 족부센터 원장은 족저근막염·무지외반증 등 난치성 족부 질환이 전문 분야다.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강정우 척추센터 원장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허리·목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등을 연구해 치료에 적용한다. 부천 연세사랑병원의 의료진은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절척추 특수 클리닉을 갖춘 것도 부천 연세사랑병원의 특징이다. 스포츠 손상 클리닉은 각종 스포츠나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손상을 치료한다. 부천 연세사랑병원에서는 치료뿐 아니라 수술 후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한 재활 운동, 기타 근골격계 통증까지 통합 관리한다. 재수술 클리닉은 관절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재수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인공관절이 수명을 다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인공관절 클리닉, 관절내시경 클리닉, 연골 재생 클리닉, 스포츠손상 클리닉, 허리 교정 클리닉 등 부위별·치료별로 다양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 연세사랑병원은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해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고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필립스의 최신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갖춘 게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에 고해상도 영상 진단이 가능하다. 기존 MRI 장비는 검사 범위가 한정되고, 복부 검사 시 숨을 참고 촬영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숨을 참기 힘든 환자 등은 한 번에 촬영이 어려워 여러 번 촬영이 필요하다. 부천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는 “고가의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것은 환자 중심의 병원 철학이 기반에 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최신 의료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서비스와 수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기자 mwis@hankyung.com



비만치료 병원으론 ‘마취 전문의 실명제’ 첫 도입

비만치료특화부문 대상 서울365mc병원

서울365mc병원(대표병원장 김하진·사진)은 비만 치료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진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다. 국내 비만 치료법과 지방흡입 수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중동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 비만 치료 중점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마취 전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 시술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서울365mc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최근 2년간 평균 20% 정도 늘었다. 외국인 환자는 나라마다 선호하는 체형이 달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데다 다양한 체형과 인종에 따른 맞춤 수술을 할 수 있는 지방흡입 수술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만 특화 의료기관이라는 전문성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도 큰 매력이라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단순히 지방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을 저장하



는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단기간에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요요 현상 등 재발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은 지방흡입 수술 전 검진센터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흡입 수술 전 검사센터도 내부 별도 공간에 마련돼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다. 정확한 체형 비율과 사이즈 측정 가능한 3D(3차원) 체형 분석, 내장 비만과 지방층 두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모든 수술 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비만 치료 전용 의료영상 처리 시스템을 통해 진료실과 수술실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보내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인증도 받았다.

지방흡입 수술은 대부분 수면마취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마취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마취에 대한 병원의 철학이 외국인 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병원에서 도입한 마취 전문의 실명제는 지방흡입 수술 환자에게 누가 자신을 마취하는지 의사 실명을 공개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다. 제도 도입으로 수술 환자는 수술 전 집도의와 마취 전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모두 4명이다. 마취 안전에 관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2014년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하고 수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마취에 필요한 장비는 대학병원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마취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마취의사가 이동하면서도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진 병원장은 “비만 치료와 마취 안전에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며 “체중 감량과 체형 교정 기술뿐 아니라 환자 마음을 보듬고 환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



칼 안대고 디스크 제거... 척추내시경 시술 ‘척척’

척추관절부문 대상 안산21세기병원

안산21세기병원(병원장 이현욱·사진)은 2008년 경기 서남부 지역에 최대 규모로 안산시에 개원한 척추 관절치료 중점병원이다. 이 병원 의료진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3대 메이저 병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개원 7년 만에 평택 광명 일산 제주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척추 관절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병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다. 첨단 의료장비와 뛰어난 의료진이 척추 및 관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문 의료진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한다. 비수술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환자 입장에서 치료한다.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절개 범위를 최소화해 수혈량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있다. 칼을 대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척추내시경 시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를 위한 특수시술, 허리 척추 인공디스크 수술 등 난도 높은 척추 수술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아시아태평양 척추 내시경 및 일반 수술 수련 병원, 국제 척추 인공디스크 수술 수련 병원으로 인증받았다. 신경외과 전문의 전임의(펠로) 과정을 운영하며 척추 전문의도 양성하고 있다. 다른 병원 의료진을 초청해 척추 내시경 수술, 척추 수술 연수와 교육을 하며 최소 침습 척추 수술법을 보급하고 있다.

이 원장은 환자들에게 “레이저로 수술한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한다. 허리 디스크(디스크 탈출증) 환자가 병원에서 “레이저로 수술한다”는 말을 들으면 살을 찌지 않고 하는 간단한 수술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레이저는 잘라내는 도구로, 칼(메스) 대신 사용하는 정교한 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술을 못하는 병원에서는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하는데 이들이 레이저를 강조하며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레이저로 수술한다는 말을 들으면 현미경으로 하는지, 내시경으로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현미경으로 한다고 답하면 절개하는 수술을 말하고 내시경으로 한다면 비절개 시술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안산21세기병원은 실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척추 관절 리더로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며 치료 계획을 세웠던 환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착한 진료와 정성 어린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을 지향한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다. 퇴원 후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경과 살피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의료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병원을 찾은 고객이 아픈 몸뿐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